열린 예비대학 즐거운 수험생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예비대학에 참가한 고3수험생들이 학교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활짝 웃고 있다.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고교 3학년 학생 1만2000여명이 참가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언어 46번 문항 정답 이상 없다 결론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언어영역 46번 문항은 심사 결과 정답과 문항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이 문항과 관련한 주된 이의제기는 〈보기〉의 '금리'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의미한다고 보면 정답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항의 지문에서는 '금리'를 '시중 금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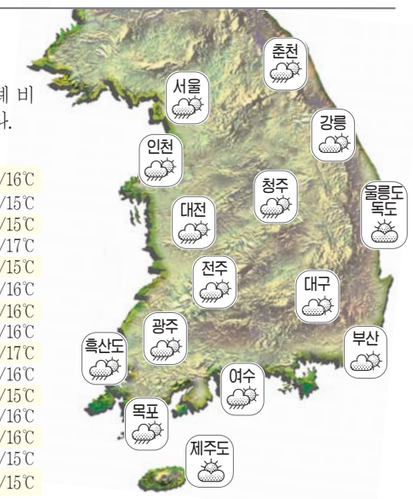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1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01시 07분 달짐 13시 22분

오전에 부슬비

오전에는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 온 후 오후에는 개겠다.

광 주	오전 한때 비	6/16℃
목 포	오전 한때 비	8/15℃
여 수	오전 한때 비	8/15℃
나 주	오전 한때 비	3/17℃
완 도	흐린 뒤 맑음	6/15℃
구 례	오전 한때 비	3/16℃
해 남	오전 한때 비	3/16℃
장 흥	오전 한때 비	3/16℃
고 흥	오전 한때 비	5/17℃
순 천	오전 한때 비	5/16℃
영 광	오전 한때 비	6/15℃
진 도	오전 한때 비	5/16℃
전 주	오전 한때 비	6/16℃
남 원	오전 한때 비	2/15℃
흑산도	오전 한때 비	11/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8:51 21:16	01:44 14:10
여수	04:04 16:20	10:00 22: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날 씨						
최저/최고	6/17	7/13	6/9	3/15	6/15	6/12

지역 대학 우수학생 유치 총력전

장학금·해외 연수·취업 지원 대책 등 내세워 '손짓'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입시철을 맞아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탓에 재수를 꺼리는 수험생들이 하향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 상당수도 내년부터 '수리 나'영역의 출제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 대신 지역 대학을 선호함에 따라 대학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풍부한 장학금은 물론 해외 연수 등 각종 취업 및 장학지원책을 내세워 수험생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전남대는 오는 12월 7일까지 개최하는 예비대학 행사를 통해 대폭 늘린 장학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사범대·의대·수의대를 제외한 인문계열과 이공계열 신입생 중 수능성적우수(수능 영역별 각 2등급) 학생에게 대학 4년간 등록금과 생활관 관리비 전부를 면제해준다. 또 이공계열은 수능 영역별 3등급 이상인 신입생에게 등록금·생활관 관리비 50%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학부 졸업생 중 전남대 대학원이나 세계 100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첫 해 1년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동신대는 수능 이후 흥미 위주로 진행되던 캠퍼스투어를 지양하고 고교방문 특강과 학과별 특별프로그램, 아이돌그룹 비스트 초청 공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홍보에 나선다. 동신대는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2일부터 고교를 직접 방문해 특강을 갖고 있다. 관련 학과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카메라 고수되기 ▲보석이야기 ▲새내기를 위한 메이크업 따라 하기 ▲한류와 국가경쟁력 ▲나도 히말라야에 갈 수 있다 ▲천연 화장품을 이용한 뷰티미용 체험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고교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으로 '1일 승무원 체험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시 합격자에게 무료로 토익 교재를 나눠주고 미리 영어학습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또한 미용과학과와 초등·중등특수교육과는 현직 교사 선배를 초청하여 임용고시 방법과 교사 생활에 대한 체험담 등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주대는 우수학생 유치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6등급까지의 학생들에 대해 입학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불 탄 향일암 해맞이 가능

복원공사 다음달 착수

대웅전 등이 불에 타 큰 피해를 입었던 여수 향일암이 다음달 복원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향일암은 지난해 12월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등 3채에 대한 건물 복원공사를 내달 중 착공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향일암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전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소실 건물에 대한 복원 허가가 나왔다"며 "여수시의 건축허가 등 당국의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내달 중 착공, 내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일암은 복원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문화재청과 전남도 등으로부터 긴급 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았다. 또 나머지 18억5000만원은 사찰에서 10억원을 내고 전남도와 여수시 등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화재 피해에도 불구, 제15회 향일암 일출제는 다음달 31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옛 재단측 이사 사퇴 촉구

조선대 총학생회

조선대 총학생회는 29일 "옛 재단측이 추천한 박성숙·정순영·주광일 등 이사 3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옛 재단은 7만여명의 도민이 세운 대학 설립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집단"이라면서 "이들이 추천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이사 3명은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증심사 입구 불법 주정차 이번 주말부터 단속한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22일 7면〉에 대해 광주시 동구가 이번 주말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구간은 증심사 입구부터 학운초등학교까지 인도와 갓길이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